

가나조 전설

네마치 온천 근처에는 한 그루의 소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와 관련된, 등골이 서늘해지는 금지된 비련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다네가시마 섬에서 온 불교 승려가 유무기의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무라이의 딸이었던 가나조는 혼무라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가나조는 편도로 세 시간 가까이 걸리는 위험한 길을 걸어서 이 승려를 자주 만나러 갔습니다. 가나조의 오빠는 이 연애를 눈치채고 집안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가나조에게 더 이상 승려를 만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당시 승려는 아내를 맞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빠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가나조는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화가 난 오빠는 호시가미네 봉우리의 계곡에서 가나조를 몰래 기다렸다가 처참하게도 거기에서 그녀의 목을 베었습니다. 가나조의 몸과 아이는 골짜기 밑으로 떨어지고, 가나조의 머리는 머리카락이 한 그루의 소나무 가지에 엉켜 나무에 매달린 채로 남았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찾아 계속 울었고 이후 산들에 메아리치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가나조의 시신과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이곳은 깊은 숲이 되어 있습니다. 혼무라에서 유무기로 가려면 자동차로도 약 50 분이 걸리며, 그 여정은 가나조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보내기 위해 감수했던 고생을 증명하고 있습니다.